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 인쇄 · 출판 특화산업 지정

잉크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값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던 1960년대 중반, 인쇄 ·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기사가 하나 게재됐다. 상공부가 특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 1965년 1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 1면에 게재된 이 기사는 상공부가 밝힌 '국내 수출 진흥 방안'을 위한 8개 보완책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었다. 시보에 따르면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 산업 부문은 합판 등의 목재 산업에서부터 인쇄 · 출판업에 이르기까지 30개 업종이 선정됐으며 세제 감면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됐다. 인쇄 · 출판업이 특화 산업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 시보는 고부가가치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석했으며 생산비가 낮고 외화 획득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고용 창출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수출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 나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 ●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인쇄

외래어 표기 및 신조어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시절, '마스 ·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인쇄'라는 제목의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1969년 1월15일자에 게재된 이 사실에서 시보는

활판에서부터 마스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국내 인쇄 시장의 흐름과 기술 척도에 대해 기술했다. 시보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고 말한 역사학자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해 서적, 잡지, 신문 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쇄물을 정의했으며 문자로 전달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또 원숭이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각각의 다른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나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의 게재는 당시 국내 인쇄업이 활판 인쇄에서 오프셋 인쇄로 넘어가는 단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인쇄업이 대중들에게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보는 사실 말미에서 피루스, 양피지, 종이로 이어지는 등 재질이 다양화돼 일반 대중들에게 의사 전달 도구로서의 인쇄업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관수용 인쇄물 난립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인쇄업 수출 불황 타개 방안' 건의서에 서 관수용 인쇄물 발주 중지 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요청이 1순위로 나타났다. 1974년 1월1일자에 발행된 인쇄문화시보는 수출 목표 100억불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비영리 단체 및 언론 기관 등이 발주하고 있는 인쇄 물량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시보는 이에 대해 관수용 인쇄물 난립이 수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 요인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덤핑으로 인해 소규모 인쇄 업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관수용 인쇄물 발주는 협동조합원에 한해 제한을 뒤야 한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인쇄업은 일괄 제조업

1975년 1월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인쇄업이 개정된 영업 세법 시행령 중 용지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거래 시 용지를 제공할 경우에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됐다. 시보는 이로 인해 인쇄, 등사, 제책 등의 부문이 모두 이 제조업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경영상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유관 업체들의 발 빠른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시행령이 중대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쇄업이 서비스업으로 간주돼 이와 동일한 세율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이었다. 또 "업계의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출판, 제지업의 운영도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 출판업 1만종 돌파

1977년은 국내 출판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출판 종류 수 1만종을 돌파한 해로 기록됐다.

1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양 보다는 질'이라는 머릿글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출판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작가의 양성과 인쇄 후가공의 기술 척도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출판문화협회는 이 당시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으며 출판 박물관을 겸한 출판 자료실이 문을 열기도 한 해였다. 시보는 특히 외국 출판자금이 국내에 차관으로 도입돼 각종 외국 서적이 국내에서 출간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선진국의 우수한 출판 기술이 국내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영국서 자동계수기 개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정확한 종이 계산이 가능한 자동 계수기가 영국에서 개발됐다.

1979년 1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백지나 인쇄된 종이의 부정확한 계수로 인해 인쇄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인도 시 수량의 가감 오차에 따라 고객에게까지 불편함이 전달될 수 있는 계수기를 보완한 기종이 영국에서 개발됐다고 밝혔다.

'실렉토 매트 1A'라고 명명된 이 계수기는 분당 500매까지 처리가 가능했고 맨 위부터 자동으로

계수하는 전자동 방식의 소형 탁상용 기계다. 시보는 특히 설치 면적이 작아 어떤 작업장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고 이동성, 저렴한 가격, 쉬운 조작 등을 내세워 호평했다.

당시 국내 기술은 종이 더미 속에 색인표를 넣어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및 인력 낭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시보는 전하고 있다.

### ● 아르커스, EDDY 상 받아

아그파사의 데스크탑 컬러 스캐너인 '아르커스'가 EDDY 상을 받았다.

1993년 1월1일자 인쇄신문은 전 세계 매킨토시 사용자들의 투표 결과 스캐너 부문에 '아르커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EDDY 상은 한 해 동안의 매출량과 기술 혁신, 품질, 성능, 친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월간지 편집인들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르커스'는 10비트 평판 CCD 스캐너로 1200×1200dpi의 출력 해상도를 보유한 기종이다. 600×1200dpi의 광학 해상도에서 컬러 이미지, 선화, 하프톤, 연속 계조 작업이 가능하다.

또 광학적 투사 모듈로 35mm부터 6×9mm에 이르는 투사 원고를 스캔할 수 있었으며 반사 원고도 동시에 처리가 가능했다. 인쇄신문은 '매킨토시

시장에서 혁신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맥 유저 편집인 존 실버씨의 말을 인용, 향후 스캐너 시장의 발전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자동 오프셋 명함기 출시

두용기기(대표 최만규)에 의해 자동 오프셋 명함기가 개발됐다.

1995년 1월20일자 인쇄신문은 기능과 가격 면에서 월등한 기술이 탑재된 명함기가 출시됐다고 밝혔다. 'TOP-700'으로 명명된 이 명함기는 플라스틱판을 사용했으며 화학 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미세한 글씨, 컬러 인쇄 등의 결점을 동시에 해결했다. 또 제판기는 물론 레이저 프린터에서도 제판이 가능해 전산 사식기와 600dpi의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신문은 조작 시 초보자들도 숙련공과 다름없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고 설치 면적도 작아 어떠한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저변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도 수입품의 절반 수준인 6백만원대에 불과했다.

당시 'TOP-700'을 개발한 두용기기는 수원 공장에 월 50대의 명함기 생산 능력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정리: 장홍일 기자)